

이낙연, 자신 키운 민주당·호남 등지고 ‘반명 전선’으로

“개헌·다당제 개혁”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대행 등과 연대가능성 거론
쑤시장 등 지역 정치권 거센 비판
“내란세력과 연대 있을 수 없는 일”

6·3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의 정치적
뿌리인 광주·전남에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연대 가능
성이 비판의 분기점이 됐다.

지역 정가는 “이 고문을 총리까지 키운
호남은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좌시하지
않는다. 이번 대선 출마는 ‘최악의 자충
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고문은 29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법 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이
재명 후보는 국가 리스크로 커질 우려가
있다”며 “대선 출마 선언문을 준비하고 있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 △다당제 정치
개혁 △사회 통합 △조기 개헌을 통해 ‘제
7공화국’을 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논란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연대 가능
성을 두고 “뜻을 같이하는 세력이라면 누
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발생했다.

여기에 한 권한대행과 대선 출마를 논
의 중인 정대철 행정회장이 “이낙연 후보

도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면 자기도 흔
쾌히 돕겠다고 들었다”고 전하면서 파장
은 확산됐다.

민주당은 즉각 견제구를 날렸다. ‘전 민
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 누릴 것은 다 누
려놓고, 이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
해 내란죄 피의자인 한 권한대행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전 총리의 단
일화 구상은 국회의원·전남지사·국무총
리를 역임한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
하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과 함께 반이재
명 연대를 논하는 것은 민주당 역사에 대
한 모독”이라고 직격했다.

이 고문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전남 정
치권의 비난도 쏟아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반
이재명을 위해 내란 세력과 손을 잡겠
다는 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권교
체를 염원하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즉각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원이(목포)·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발굴하고 민주당
이 키운 인물이 내란 동조 세력과 빅텐트
를 논하다니, 제정신인가”라며 “이낙연은
더 이상 입에 호남을 올리지 마라”고 강하
게 말했다.

이 고문의 고교 후배이자 20대 대선 경
선 당시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이병훈 전
광주시당위원장도 “탄핵정국을 초래한 윤
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한 한덕수 총리와

연대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정치인은 자신의 이익
보다 국민과 국가를 우선해야 한다”고 꼬
집었다.

전라남도 영광 출신인 이 고문은 김대
중 전 대통령의 발탁을 받아 정계에 입문,
호남에서 4선 국회의원·전남지사·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민주당 대표를 지냈
다. 지난 대선에서는 한때 민주당 후보 선
호도 1위를 기록해 ‘호남 대망론’의 상징
적 인물로 떠오르기도 했다.

다만 지지 기반이 크게 무너진 상황
에서 이 고문이 정치적 영향력을 충분히 펼
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고문은 앞서 지난 22대 총선에서 광
주 광산구에 출마했으나 ‘친명계’인 민형
배 의원(76.09%)에 대패했다.

이후 과거 친낙계로 불리던 조직력도
대부분 해체돼 이 고문을 뒷받침할 세력
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민주당 영광지역위 관계자는 “이 고문
은 고향 영광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현재 ‘반명 전선’으로 윤 정부의 내란 잔
재와 한배를 탄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설
득할 수 없다”며 “호남 자부심으로 키운
인물이 스스로 ‘김대중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 지역엔 여전히 ‘이낙연’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에 사과
하고 정권교체의 길에 함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서울=김선욱·오지현 기자



‘소년이 온다’ 배경 ‘옛 광주적십자병원’ 개방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
내달 3~31일 응급실 등 공개

5·18사적지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폐쇄 이후 11년만에 시민들에 개방돼 지
역특화 관광상품인 ‘소년의 길’과 연계한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로 확장된다.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제45주
년을 맞아 5·18사적 제11호인 ‘옛 광주적
십자병원’을 오는 5월3~31일까지 일시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폐
쇄된 이후 11년 만이다.

개방 구간은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 호
을을 고려해 △전면 주차장 △응급실 △1

층 복도 △중앙현관 △뒷마당 등이며, 관
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다. 오후 1시30분 이후에는 5·18기념
재단의 ‘오월해설사’가 상주해 관람객들
에게 무료 해설을 제공한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민주화운
동 당시 부상자 치료와 자발적 헌혈이 이
어졌던 역사적 장소다. 1996년부터 서남
대학교병원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 폐쇄
됐다.

광주광역시는 사적지 보존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매입해 관리 중이며, 관련 단
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TF)을 통
해 보존·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의 5월이 다시 깨어났다. 올해로 45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은 여전히 현재진
행형이다.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이라는 슬로건 아래, 광주 동구 금남로와 국립5·
18민주묘지 일원에서는 한 달간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시민들의 축제가
펼쳐진다. 지난해 12월,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을 다시 꺼내들게 했다. 소설의 주인공 ‘동호’
는 국립5·18민주묘지에 잠든 고 문재학 열사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그의 묘비에 맺힌
빛방울이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시대의 눈물처럼 보인다.

김양배 기자

광주광역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5·18사적지라는 역사성을 시민과 방
문객에게 널리 알려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배경지 중 하나인 점
을 부각, 광주관광공사의 특화관광상품인
‘소년의 길’과 5·18기념재단의 ‘오월길’

해설 프로그램을 연계할 방침이다.

적십자병원 개방 기념 전시회도 개최하
다. 전시는 ‘멈춘 공간의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5월3~31일까지
한 달가량 진행된다.

정상아 기자

1일 근로자의 날... 신문 쉽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
다. 전남일보가 1면 광고란을 활용해 쉽게 설명한 유심 보호 안내문을 게재
합니다. 아래 안내문을 가위로 오려 지갑이나 집에 보관해 두세요. 가족, 친
구에게도 나눠주시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공유해주세요.

내 유심 지키는 방법

※유심 잠금 설정	※유심 바꾸는 거 막기	유심(USIM)이란? 휴대폰 안에 들어 있는 전화번호 등 식별 정보가 담긴 작은 칩. 유심만 있다면 다른 휴대폰에 꽂아 주인처럼 사용 가능.
1 전화 화면 켜기	1 114 전화 후 상담원 연결	
2 *330*(비밀번호 4자리)#로 전화	2 내 유심 교체 여부 확인	
3 비밀번호는 꼭 기억해두기	3 ‘유심보호서비스 신청’ 하기	